

주일의 말씀

먼저 해야 할 일과 곁들여 받게 되는 선물

정석수 유스티노 신부
성요셉재활원 원장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마태6,33)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곁들여 받게 되는 부차적인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 보면, 양립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한다. 한쪽은 미워하거나 업신여기게 되고 다른 쪽은 사랑하거나 떠받들게 되기에 하느님과 재물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모습은 여호수아서에 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여호수아24,15) 양립할 수 없는 가치선택에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이에 백성도 우선가치에 따른 선택을 분명히 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여호수아24,16-18)

카이로스, 즉 풍요의 패러다임으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하느님의 자리를 분명하게 세웠으면 크로노스 패러다임으로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을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현상이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에게 재물, 부는 선이지만 제

일 좋은 것은 아니다. 부는 그 나뭇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 즉 재화는 상대적인 것으로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여 가난한 이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324항 참고) 그러나 하느님 아닌 재물에 빠진 “부유한 사람은 하느님보다 자신의 소유에 신뢰를 두는 사람이며, 자기 손으로 한 일로 힘을 얻으며 자신의 힘에만 신뢰를 두는 사람이다.” (간추린 사회교리, 324항) 이들에게 재물은 무자비한 주인이 되어 복음의 말씀을 억눌러 버리며 가장 본질적인 하느님의 지상 권위마저 들쭉, 셋째 자리가 되게 한다.

우리는 경제적 재화와 부로써 하느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 가난한 이들과 연관시켜 볼 수 있겠다. 부는 타인과 사회에 유익하게 쓰일 때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인데, 알렉산드리아의 성 클레멘스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어떤 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고 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부가 일부인들에게 속한 것은 그들이 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공을 쌓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고 했다. (간추린 사회교리, 329항 참조) 하느님을 일상의 자리에서 첫째 자리에 두기 위하여 기도를 실천하자. 그리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축복의 재물로써 이웃을 돌보는 의로움이 풍성하도록 나눔을 실천하자. 

생명의 말씀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마태6,34 참조)

제1독서 : 이사49,14-15 제2독서 : 1코린4,1-5 복음 : 마태6,24-34.

18.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 6·25사변

문화홍보실

3년간에 걸친 6·25전쟁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엄청난 물자와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갓 독립을 찾아 나라의 꿈을 갖추어 가던 한국은 이 전쟁으로 회생이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온 나라가 초토화되는 가운데 천주교회가 입은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종교를 적대시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따라 인민군에게 살해당하거나 강제로 끌려간 성직자, 수도자가 부지기수였고, 피난을 미처 가지 못한 교우들도 수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교의 명이 없이는 본당을 비우고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또 감실에 모셔져 있는 성체가 모독을 당하지 않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신부님들이 피난을 가지 못하고 자리를 지키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인명 피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민군은 성당 건물을 징발하여 막사로 사용하면서 성상의 목이나 팔다리를 자르는가 하면 감실에 과녁을 만들어 붙이고 사격연습을 하고, 성작과 성합을 훼손하거나 훔쳐갔습니다. 당시 대구교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구 본부가 인민군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교구였지만, 교구 내 10여 개의 성당이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었고 점령당한 지역의 성당에서는 전례를 위한 성물과 제의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하는 못된 짓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것이 전쟁입니다. 카인이 제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이래 인간 사회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노인들, 병약한 이들이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끔찍한 참상은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벌어들인 불행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신이 정말 있다면 어째서 이런 참혹한 일을 막지 않는가?” 하지만 우리 하느님께서 그 참혹한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으셔서 몸소 사람이 되셨고, 가장 깨끗한 어린아이보다 더 죄 없으신 분께서 인간의 탐욕과 시기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시고 무참히 돌아가셨습니다.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군대와 무기만으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도록 대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도 서로 짐을 져주고 손해를 감수하며 양보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전쟁은 또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벌여놓은 죄값을 무죄한 이들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한 번씩은 하늘을...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8주일

입당성가

34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화답송

◎ 내 영혼아, 하느님만을 고요히 기다려라.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영성체송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이다.

파견성가

461 나는 주님 포도밭

영성의 향기

::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하느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의 기초이며, 모든 율법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한 마디로 요약됩니다. 사랑을 할 줄 알아야 계명도 지킬 수 있고 하느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남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꾸준해야 하고, 일생을 두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당신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즐기게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이 지상에서 벌써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길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 교구사목국 권가타라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하느님의 놀라운 작품



당신이 평균 몸무게의 성인이라면, 당신의 심장은 하루에 십만 번 뛰어 피를 2억 7천만 킬로미터 흐르게 하고, 당신의 폐는 2만 3천 번의 호흡을 통해 1만 2천 리터의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당신은 24시간 동안 평균 2.5킬로그램의 음식을 섭취하고, 4천 8백 마디의 말을 하며, 750개의 근육을 움직이고, 700만 개의 뇌세포를 활용합니다. 하느님께서 신비롭게 만들어주신 우리 몸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사람이 되실 때 우리와 똑 같은 육신을 취하셨고,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을 우리가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 옮겨온 글입니다 -

교구 예비신학생 등록제 실시

신청마감: 3.20(일)

문의: 본당 사무실

※등록·모임참석자만 하계 성소과정 가능

성소 / 파정

오순절평화회의마을 후원회미사

일시: 2.28(월) 11:00

장소: 고산성당

내용: 고해성사, 미사, 안수

문의: (051)782-0765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성소모임

일시: 3.5(토) 16:00 ~ 6(일) 14:00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대상: 고등학교 이상·만32세 이하미혼 남성

문의: (010)8353-2323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회 성소모임

성소를 찾고 있는 젊은 자매들의 기도모임

일시: 3.6(일) 13:00, 아곡성당

문의: 이 리디아 수녀, (016)570-0939

2박3일 무료치유 파정

일시: 3.4(금) 18:00 ~ 6(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한국의방선교회 성소모임

일시: 3.6(일) 11:00

장소: 서울 본부

문의: (010)8752-3034

모집 / 교육

3월 영여성경 공부반 모집

개강: 3.3(목) 10:00~12:00, 월 2만원

과정: 화-2코린, 신명 / 목-마태, 창세

문의: 관덕정, 254-0151 / (010)2578-5535

가톨릭어버이성경학교 입학식 안내

일시: 3.5(토) 14:00

장소: 가톨릭어버이성경학교 교육관

대상: 신입생 및 재학생

문의: 815-7888 / 815-0337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 나는 성경공부'

전문 지도자(강사) 교육

일시: 3.14(월) 매주 월, 8주, 선착순30명

장소: 대구바오로딸서원 교육실 13:00~18:00

회비: 15만원(교재, 간식제공)

문의: 425-5185 / (010)2990-5185

복음적인 생활영성 강좌안내

일시: 3.14(월)개강~6.13(월)수료미사

내용: 신앙, 영성, 전례, 신심, 기도, 공동체

생활에 관한 영성생활의 전반적인 신앙교육

강사: 정대식(폴로리아노) 신부

문의: 가톨릭여성교육관, 254-6115

제6기 『세상속의 영성수련』교육 안내

예수는 누구인가, 믿는다는 것, 묵상1,2

기도란 무엇인가, 관상, 원리와 기초

일시: 3.25~5.13 매주(금) 10:30~12:30

장소: 교구청 교육관 나동 4층(수강료:6만원)

문의: 대구 CLC, 793-3555

2011년도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모집

일시: 3.19(토) 14:00

장소: 월배수도원

대상: 53세 이하 가톨릭신자

문의: 632-9800 / (010)3353-3004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4기 모집

설명회: 3.26(토) 15:00, 접수: 3.26(토)~

회화전담강사 전형대비, 무료어학연수

미국 유학시 학점인정, 1년내 석사학위

자녀동반유학시 자녀학비무료

문의: 526-0111 (<http://tesol.cu.ac.kr>)

2011년 1학기 신학교육원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신학일반과정, 영성상담, 사회교리

복음화소피치, 기초 성경그리스어

봉사자 교리교육, 참된 행복의길

성경읽기방법론, 요한묵시록, 신구약성경입문

문의: 660-5105~6

직원 채용

성바오로청소년의집 직원모집

모집분야: 위생원(아침식사준비 및 세탁물관리)

근무시간: 6:00~14:00,

대구사사회복지시설인건비지급기준

근무형태: 정규직, 숙소제공, 50세 이하

문의: (054)382-2834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4대리구 포항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2월 28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3월 3일(목) 오후2시	성모당
구미지역 밀알후원회미사	2월 28일(월) 오전11시	도량성당	미사회 미사	3월 4일(금) 오후2시	성모당
군중후원회 미사	2월 28일(월) 오전11시	계신주교좌성당	성모의 기사회 미사	3월 5일(토) 오전10시	월배성당 내 수도원
			푸른군대 첫 토요일미사	3월 5일(토) 오후2시	성모당

눈 안 과

원 장 임흥식(라파엘) 장주희(엘레나)

당일수술·퇴원 초음파검진·라식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 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식유

전화 한 통화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베네딕도)

(주) 매일종합가전

전기메트, 구동장, 난로, 난방기구, 커피포트

생활가전, 청소기, 에어컨, 선풍기, 방방기구

대표: 김 홍은(요셉)

T: 604-3300

대구유동단지 전자관(중앙홀) 1층 239호

결혼 정보 회사

혼인을 앞둔 교우 자녀와

엘리트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주)코리아알트만

박복순(온트리아)

• 지하철 2호선 범여역 4번 출구 •

TEL 743-4488 FAX 744-1594

강남 피아노사

중고피아노고가 매입

조율, 윤반, 수리, 매매

각종 악기 영가 판매

☎ 010-3541-8194

053) 423-7009

김 스테파노(교우님 우대)



장 윤 제

연 합 치 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와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752-9797

우리타운 & 우리웃

우리나라 수사님께서 현재에서 직접 생산,

관리 및 감독하여 식약청 허가를 받은 보이재!

전통차 자연염색부류, 우리한복 다기 및 다도구

수정대례원 원장 정수자(엘리사벳)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2동 768-3 희망로

010-3510-2184

김준홍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전문의 김준홍(라파엘)

TEL: 791-9005

위치: 지하철 2호선 신매역

지하철 2호선 신매역